도자의 역사, 폐사지서 만나다

회암사지 박물관, 10월 9일까지 올해 첫 기획전

고려~조선 도자 유물 전시

"이 술잔은 맑고 티가 없어서 술을 따르면 티끌이나 찌끼가 다 보인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마치 대공지정(大公至正)하고 한 점의 허물도 없어 선(善)하지 못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 자와 같다." 〈성종실록〉 권260, 22년(1491) 12월 을유

백자의 맑고 티 없음은 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사대부가 견지할 덕목의 표상으로 비유될 정도로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이었다. 비단 백자뿐 아니라 비색(翡色)으로 대표되는 고려청자, 분청사기 등 우리의 도자기는 정갈한 품격과 지조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양주회암사지박물관에서는 6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2016년 첫 기획전시인 '도자, 옛 회암사를 빛내는 美'를 개최한다.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는 발굴 초기부터 옛 사찰의 흔적과 함께 무수한 왕실 관련 유물이 출토되어 조선의 '별궁(別宮)'에 준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납자기나 조선 왕실 관요에서 생산된 자기 등 도자기류가 전체 사지 출토 유물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전시되는 도자 유물인 '백자 동자상'

이들 도자 유물들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중기까지의 도자양식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문양·명문을 지니고 있어 옛 회암사와 왕실 관계를 직접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회암사지박물관은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도자를 중심으로 고려 청자와 분청사기, 조선 전기의 백자와 청자, 중국 자기 등 다양한 도자 유물이 전시된다"면서 "이들 유물의 유형이 갖는 역사적, 미술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한 공간에서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31)8082-4187 신성민 기자

부처님 '妙音' 전할 합창대회 열린다

10월 30일 제 1회 도솔전국불교합창대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 단위 불교합창대회가 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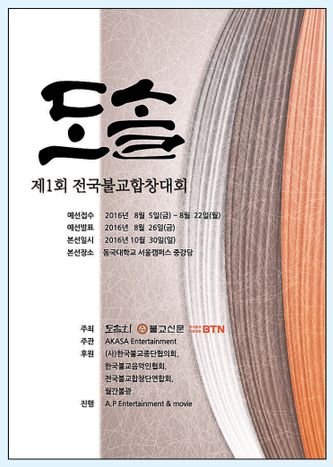
아카사(AKASA) 엔터테인먼트(대표 강형진)는 6월 20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도솔회, 불교신문, BTN불교TV가 공동으로 격년마다 '도솔 전국불교합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카사 엔터테인먼트는 대회를 주관하며 도솔회는 함현 스님을 후원하는 단체다. '도솔'은 스님의 호(號).

도솔 합창대회는 종단과 관계없이 성인으로 구성된 사찰 및 불교단체 아마추어 합창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징은 각 파트별로 전공자를 2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합창의 전문성을 높이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대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성규 청주 관음사 지휘자는 "그동안 순수 아마추어대회에서 몰래 전문가를 포함시켜 경연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보다는 대회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정행위도 없애자는 취지로 전문가를 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솔 합창대회는 상금에 있어 불교계 역대 최고 규모를 자랑한다. 대상(도솔상) 700만원과 최우수상(안락상) 500만원 등 총상금만 2450만원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가장 큰 전국합창대회였던 조계종 문화부의 '불교합창페스티벌'(대상 500만원)보다 상금 면에서 한 단계 높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합창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예선을 동영상 심사로 실시한다. 예선은 함현 스님 작품집 '천년의 향기' 25곡 중 1곡을 지정곡으로 소화해야 한다. 각 합창단에 맞게 편곡도 가능하다. 예선을 거쳐 8~12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진출팀은 지정곡과 더불어 자유곡 1곡을 선보여야 한다. 자유곡은 전통가곡·범패·판소리·재즈·대중가요·뮤지컬 등 예술가곡형태로 편곡된 모든 장르의 곡이면 된다. 단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출전단체가 직접 이를 해결한 뒤 참가해야 한다.

참가 희망단체는 홈페이지(dosolchant.wix.com/home)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합창단 단체사진과 명단, 예선지정곡 악보 1부를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선 동영상은 DVD 또는 USB로 우편접수(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0, 410(문정동, 파트너스2))만 가능하다. 예선접수 기간은 8월 5~22일이며, 본선진출 발표는 26일이다. 본선은 10월 30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외에도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기회가 주어진다.



8월 5~22일까지 예선 접수
동영상 심사 후에 본선 진출
대상 700만원 등 최대 규모
사찰·단체 합장단 참여 가능

함현 스님 원력으로 대회 열어
"불교합창 저변 확대위해 노력"

강형진 대표는 "격년으로 열리는 조계종 문화부 합창페스티벌과 겹치지 않게 진행해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불교합창 저변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회는 함현 스님의 문화포교원력으로 탄생했다. 평소 다방면으로 음악을 즐겨듣는 스님은 음악이 포교에 좋은 방편이라 여겨 찬불가사를 꾸준히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관음사 주지 시절, 박성규 지휘자와 담소를 나누다 합창대회를 계획하게 됐다. 현재 스님은 남원 황매암에 주석하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02)415-2599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금니로 그려낸 석가모니 부처님

이해기 작가, 불일미술관 20주년 '싯다르타 展'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초기에 부처를 금인(金人), 금선(金仙)이라고 칭했다. 이를 모시는 대웅전을 '금당(金堂)'이라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고귀한 귀금속인 '금'으로 부처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한 예경의 의미를 가진다.

금니로 그려진 부처님을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7월 31일까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금화(金畵) 작가 이해기 씨의 상설 전시회 '싯다르타 전'을 개최한다.

이번 상설 전시회는 고려불화의 품격을 계승하면서 조선불화의 민예적 화풍을 겸비해낸 이해기 작가만의 '금니선화(金泥禪畵)'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부처님의 생애 일대기를 시간과 중요 흐름 순으로 조망하면서 불교를 모르는 이들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시가 구성된다.

또한, 불교회화의 전통양식인 민어부레로 만든 풀에 순금을 개어 붓으로 그리는 잊혀진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복원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해기 작가의 작품 '싯다르타'

작가에게는 금니선화 작업은 수행과정 자체다. 동국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3년 간 탱화를 그리다가 스님이 되기 위해 출가를 했던 이력도 있다. 다시 속세로 나온 후에는 금니선화에 매진하고 있다.

불일미술관은 "부처님의 생애를 현대적 금니로 장엄하는 표현기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체상태인 불화작품 기근에 주목할 만한 불교회화"라고 설명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서도 수준 높은 클래식 만날 수 있어요"

바리톤 김재일 성악가 독창회 최초 찬불가 공연
3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해탈의 기쁨' 등 4곡 편성

독실한 불자인 성악가 바리톤 김재일의 힐링 독창회 '힘 콘서트'가 6월 30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주로 불교계 행사가 진행되고, 전문 공연·연주홀도 아닌 이곳서 김재일 씨가 독창회를 마련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재일 씨는 불교에서도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교회엔 공연 시설이 별도로 마련된 곳이 많아요. 이처럼 종교시설서 문화예술공연이 다채롭게 열린다면 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종교계에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불교시설에서도 클래식 공연이 열릴 수 있단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불자 성악가 김재일(바리톤) 씨가 공연하고 있는 모습.

충주에 위치한 천태종 삼충사를 다니며 불심을 키웠다는 김재일 씨는 대학시절,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던 동문들 틈에서 개종 권유도 수차례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불교에 대한 신심을 굽히지 않았고, 데뷔 후엔 불교계 음악행사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불교 음악 발전에 대한 김재일 씨의 애착은 남다를 터. 이번 공연에선 한국가곡·독일가곡·아리아 등의 클래식 중에서도 불교적 색채가 짙은 곡들로 선별했다.

특히 '님이시여' '연꽃 피어오르리' '청산은 나를 보고' '해탈의 기쁨' 등 총 4곡의 찬불가 무대도 선보인다. 김재일 씨가 개인 독창회서 찬불가 무대를 따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공연 중간 중간 관객과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관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감으로써 클래식을 쉽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을 통해 가능하며, 공연비는 전석 3만원이다.

바리톤 김재일은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와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국립극장에 루치아의 주역 엔리코로 데뷔, 한국에선 서울시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의 주역 제르몽으로 서울문화회관 대극장서 데뷔했다. KBS 교향악단, 서울시·안산시·경기도립 국악관현악단, 독일 브란덴부르크 국립, 바그너캄머, 바이로이트 포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바 있다. (02)597-2004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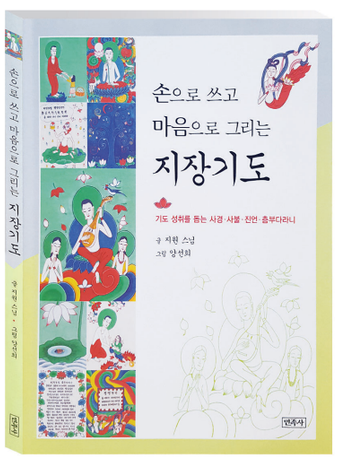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

스토리를 읽으면서 사경(寫經)과 사불(寫佛)을 하고
기도하는 국내 최초의 지장기도 책!!!

이 책이 이끌어주는 대로 글을 읽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면서 지장기도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힐링이 되어 마음이 편안해 질 것이다.

특히 지장기도의 가피로 건강을 되찾고 육지장사를 창건한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혜가 열리고 운명을 바꾸는 법을 체득하게 된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로서 전통불화의 맥을 이어 21세기 불교회화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양선희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만으로도 법열이 충만해지고 기도 성취가 되는 신비한 가피를 입게 될 것이다.



글 | 지원스님 그림 | 양선희
출판사 | 민족사 값 | 10,000원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